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사 중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(주에콰도르대사관)

-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5.24(토) 취임사 중 에너지 관련 향후 정책 방향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.
 -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시스템 개선 및 매트릭스 다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△에너지 송전시스템 개선 △태양광·풍력·지열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매년 300MW 발전 계약 추진 △원자력 에너지법 제정으로 원전 도입 체계화 △정유플랜트 현대화 △천연가스 광구 개발 확대를 통한 천연가스 생산 증대 △국영석유공사(Petroecuador), 국영발전공사(CELEC), 국영배전공사(CNEL), 국영광업공사(Enami) 등 에너지 공기업에 민간기업 성격을 부여하여 효율성 증대 등
- 취임사에서 설명한 노보아 2기 정부를 둘러싼 경제환경 및 도전과제 중 에너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**(석유생산)** 석유 수입은 세수에 이어 정부의 두 번째 수입원으로 석유생산 및 수출량은 정부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나, 2024년에 이어 2025년에 들어서도 석유생산 감소세 지속 하락* 등으로 더욱 심각하여 2025년 1분기 석유 수출액은 전년 동비 대비 44% 폭락하였고, 대형 유정 중 ITT 유정 폐쇄가 본격화됨에 따라 석유생산의 80%를 차지하는 Petroecuador社の 석유생산 역량 약화 등에 대처가 필요한 상황
 - * 2025.3월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6% 감소, 석유 수출세는 석유 가격(WTI) 하락 등으로 악화
 - **(에너지)** 작년 전국적 단전이 있었던 4월은 무사히 넘겼으나, 늘어나는 전력 수요 속에 본격 가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후 단전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며, 지연 중인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가뭄 도래 전 완공과 노후 화력발전소 복구 가속화 등이 중요

석유·가스

◆ Trans Mountain Expansion (TMX) 파이프라인 완공과 대아시아 원유 수출 본격화 (주밴쿠버총영사관)

- 2024.5월 앨버타주 애드먼튼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(BC) 광역 밴쿠버항(Burnaby시 소재 Westridge Marine Terminal)을 연결하는 TMX 파이프라인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앨버타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아시아 수출이 본격화됨.
 - 동 파이프라인은 일산 89만 배럴의 원유 수송 가능
- 2024.6월 기준 Westridge Marine Terminal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의 양은 일일 평균 35만 배럴 내외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바, 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, 일본, 중국이 주로 수입중임.